

남원시, 국비 확보 '발빠른 행보'

중앙부처 일제 출장 지시 등 선제적 대응 나서

남원시는 최경식 시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지역 현안사업 해결 및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발빠르게 다각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일제 출장을 지시하는 등 부처 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달 30 일에는 '2025년 국가 예산 확보 일제 출장 결과보고회'를 개최, 사업별 부

처 예산 반영 상황을 점검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출장을 추진해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 시장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출장도 잦아지며, 5월 1일은 경찰청, 2일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의 부처를 방문하며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 타개를 위해 발빠른 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다.

행정안전부를 방문한 최 시장은 △등구·백평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669억원) △생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115억원) 등의 사업 필요성과 국비 지원의 당위성과 절실함을, 환경부에서는 △산내 부운지구 하수관로 설치 사업 의 3건(317억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444억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의 2건(987.2억원)의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추진 여건 등에 대한 타당성을 피력했다.

한편 최 시장은 "수시로 출장을 통해 부처 의견을 빠르게 반영해 사업 타당성을 보완하고, 중점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는 최경식 시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지역 현안사업 해결 및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순창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참여희망자 수요조사

31일까지 해당 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순창군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주관)이 주관하는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를 앞두고, 오는 31일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희망자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주택이나 건물 등에 태양광(3kw), 태양열(13.6㎡), 지열(17.5kw)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군비를 지원해 자부담을 최소화하

는 정부 인센티브가 큰 지원사업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광 설비 설치 시 주택에 전기요금 절감효과, 태양열은 보일러 가동 없이 온수 600L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열은 기존 보일러 대신 지열 난방과 온수 300L를 사용할 수 있어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다. 공모사업 예산 규모는 최대 국비 15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약 37억 원에 달하며, 5개 면의 수요조사를 거쳐 대략 394여 개소의 주택·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모사업 대상지는 순창군 5개 면(금과면, 팔덕면, 북흥면, 쌍치면, 구림면)으로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주택이나 건물 소유자는 사업신청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해당 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 공모 선정 결과는 오는 10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선정된 지역은 내년 부터 본격적인 에너지 설비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2024년 지적 재조사 사업 본격 착수

남원시는 전북도 지적 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적 재조사 지구지정 승인 완료로 2024년 지적 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로는 수지1지구(등동, 산촌, 양촌마을), 금지2지구(임동, 임서, 서재, 매촌, 상신, 임촌마을), 대산면 노산지구(노산마을), 산동면 태평지구(신풍, 태평, 이곡마을), 이백면 호기지구(호촌, 호기마을), 산내1지구(임석, 상황, 중황, 하황, 장항마을) 등 총 6개 지구(3,638필지, 159만㎡)로 사업비는 총 7

억여 원이 투입된다. 앞서 시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별 현장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 소유자 및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지적 재조사 지구지정 신청을 진행,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현황조사 및 재조사측량, 경계협의 및 경계확정, 조정금 산정 등을 거쳐 내년 말 완료된다.

올해는 토지 경계분쟁 해소와 더불어 다양한 협업을 통한 각종 사업 해결에도 중점을 두고, 대산면 노산지

구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의 부지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업을 진행 중이며, 산내1지구 임석마을 및 수지1지구 등동마을은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맞물려 노후주택 신축 및 마을안길 정비 진행에 있어 지적 재조사사업 효과를 톡톡히 누릴 전망이다.

특히 산내1지구 임석마을은 실상사 부지에 2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어 이번 지적 재조사사업을 통해 새롭게 경계를 정리함으로써 추후 소유권 이전 절차가 편리해져 마을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치즈테마파크 유가족장에 동물을 위한 공간을 새롭게 단장해 시범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심 민 군수가 동물체험장을 둘러보고 있다.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귀요미 동물 만나보세요"

가정의 달 동물체험장 시범 운영

"5월 가정의 달, 아이들과 손잡고 치즈도 먹고, 귀여운 동물들과 교감하세요."

대한민국 유일의 치즈 체험 관광지이자 2023년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된 임실치즈테마파크에 귀엽고 사랑스러운 동물들이 어린이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군은 임실치즈테마파크 바람의 언덕 너머에 있는 미니동물원인 유가족장에 미니돼지와 조랑말, 공작 등 도심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동물을 위한 공간을 새롭게 단장해 시범 운영한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가정의 달을 맞아 군은 이곳을 우리 아이들이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도록 가족 단위 체험과 교육의 장으로 새롭게 만들었다. 이곳에는 오수견과 고양이, 토끼, 포니, 칠면조, 새끼거위 등 11종 35마리의 동물이 있으며, 5월과 6월에 시범 운영된다. 평소 접하기 힘든 다양한 동물들을 직접 만나 먹이주기 체험 등 가족 생태와 특성에 대한 교육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군은 치즈테마파크를 치즈와 동물 체험을 결합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가족 방문객들을 위한 가정의 달 행사를 갖는다.

어린이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보물찾기 △에어 범퍼카 △회전목마 △블록 만들기 △달고나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인기 프로그램과 △가족 장기자랑 △케이크 만들기 △기념품 증정 등 가족 모두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7·8월 아쿠아 페스티벌, 10월 임실치즈축제, 12월 임실산타축제 등 연중 다양한 축제 개최로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가정의 달인 만큼 아이들과 함께 치즈테마파크에 오시면 치즈 체험도 하고 동물들과도 교감할 수 있는 특별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옥정호 붕어섬 '보이는 소화기' 설치

임실소방서, 대형 재난 예방

임실소방서는 최근 화재 없는 안전한 임실군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옥정호 붕어섬 내 스탠드형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했다고 3일 밝혔다.

옥정호 붕어섬은 소방서에서 거리가 멀고 출렁다리로만 접근이 가능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지형적 특성과 많은 숙박들로 인해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높다. 이에 소방서는 붕어섬 내 곳곳에 13개의 보이는 소화기함을 설치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대형 재난 예방을 위한 초기대응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동규 서장은 "누구나 보이는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입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임실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농기센터, 잔가지 파쇄기 무상 임대서비스 지속 결정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기간 제공되던 잔가지 파쇄기 무상 임대 서비스를 연중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결정했다. 이에 지역 농민들은 농업 부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가치 있는 유기물로 전환할 수 있어, 이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연장 결정에 대해 지역의 대기질 개선과 친환경 농업 기술 사용 촉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지원, 농민들이 농업폐기물을 관리하고 재활용하기 쉽게 함으로써 남원시의 더 나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시작

순창군 장애인복지관이 지난 달 11일 화려한 개관식을 마치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복지관은 방문상담을 통해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선정했으며, 직업적응 훈련에서부터 평생교육, 문화여가(스포츠, 재활운동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과목을 개설했다.

과목은 직업적응훈련(짜짜깍반), 평생교육(힐링활력교실, 신나는 노래교실, 행복공예, 제과제빵), 문화여가사업(문화탐방 나들이 등), 스포츠(모두의 올림픽, 생활스포츠, 육상, 파크골프, 수영), 재활운동실(신체활동 및 운동기구를 이용한 재활운동) 등이다.

특히 복지관은 쌍치·북흥면 등 복지관과 거리가 먼 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마을거리 도란도란'이라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지역 공동체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